



24 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성별	여성	나이	34세	직종	간호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00년부터 □대학병원에서 중앙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011년 6월 왼쪽 가슴의 종괴를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영상학적 검사 및 조직생검 실시하여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2000년 2월부터 임시직으로 □병원 중앙수술실에 배치되어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2005년 9월까지 수술실 일반간호사로, 2005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술실 정형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수술실 일반 간호사 업무는 수술 중 보조 업무, 순환 간호 업무, 물품 관리 업무, 의료 기구 및 기계 관리 업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3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월 평균 4~6회 가량 밤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약 2년은 회복실 간호사로서 수술을 끝낸 환자의 활력징후 모니터링, 환자 보온 및 배액 관찰, 마취 후 회복정도 확인, 수혈 간호 등을 수행하였으며,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C-arm을 사용하는 수술의 수술 보조로도 참여하였다. 정형외과 전담하면서는 3rd charge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이는 일반간호사와 비슷한 acting 근무를 하였으며, 1st charge 간호사에게 배정 받은 수술에 투입되고, 주로 수술 보조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 간호사와 동일하였다.

수술 중에는 수술부위에 집도의사 및 어시스트를 서는 의사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보조 간호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1m 정도 떨어져서 작업하게 된다. C-arm의 경우 그 이상 떨어져 있게 된다. 수술 중 C-arm을 사용하는 경우 촬영 횟수는

20~100회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차폐복을 거의 항상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과거에는 차폐복이 너무 무거워 대부분 입기를 꺼려하였고, 차폐복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못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유해광선-X선)

5 의학적 소견

○○○은 2011년 왼쪽 가슴의 종괴로 병원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 및 조직생검 하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전 항암요법 시행 후 유방부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항암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2012년 4월 폐 및 흉벽 전이가 발견되었고 항암 치료 도중 폐전이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2012년 9월 사망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3세인 2000년 □대학병원에 입사하여 11년 3개월간 중앙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질병과 관련 요인으로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11년 3개월간의 X-선에 추정 노출치는 낮았으며 산화에틸렌의 노출 또한 미미하였다.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근무의 경우 직업환경의학회의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한 기준인 25년에 미치지 못해 상병에 미친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